

문화 : 문화일반

"한국 디자인 위상 알린다"...'한국 아트 퍼니처 선구자' 최병훈 뉴욕서 전시



최병훈,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 024 620', 2)024, 물푸레나무, 블랙 우레탄, 알루미늄, 자연석. [사진 최병훈 작가 제공]

한국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 최병훈(73·홍익대 명예교수)씨가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이하 벤다)에서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전시 제목은 '침묵의 목소리(Voice of Silence)'로, 최씨가 뉴욕 벤다에서 전시를 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와 미대 학장을 역임한 최씨는 2017년 8월 정년퇴직한 뒤 가구 디자인과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전문 갤러리 벤다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그는 디자인 전문 갤러리인 이곳에서 2014년, 2016년 전시를 열었다. 이 전시는 2020년 휴스턴 미술관에 그의 돌 조각 작품 '선비의 길'이 영구 설치되는 기회로 이어졌다.

이번 뉴욕 갤러리 전시에서 최씨는 3m가 넘는 돌 벤치 3점과 목재와 자연석으로 제작한 장 2점을 선보인다. 벤다는 홈페이지에서 이번 전시를 알리며 "최병훈은 한국의 전통 공예와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해 돌과 나무를 재료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의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그가 한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돌과 나무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Article Link click](#)